〔두부(頭部)〕 관련 관용 표현 연구* **

박종갑***

〈차 례〉

1. 들어가기
2. 〔머리〕의 의미인 경우
  1) 소유 주체 관련 표현
  2) 사태 내용 관련 표현
  3) 사태 발생 관련 표현
3. 〔두발〕의 의미인 경우
4.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국어의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의 의미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관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다음,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에 어떠한 성격의 의미 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며,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의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필자의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 분명히 그 의미를 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머리]는 'head'를, [두발]은 'hair'를, 그리고 [두부]는 그 둘을 다 합친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쓴다. '머리'는 단어 그 자체를 가리킨다.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비유법적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본고에서는 국어의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은, 그 핵심어인 '머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머리]의 의미인 경우'와 '[두발]의 의미인 경우' 등 2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총 60개의 관용 표현 중 46개가 전자에 해당되고 14개가 후자에 해당되어, [머리]와 관련된 경우가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관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것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분류하여 세밀하게 하위 유형화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어의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이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고, 축어적 의미와의 의미 내용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국어의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은 대부분 환유의 방식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머리]의 의미인 경우'와 '[두발]의 의미인 경우'가 조금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의해 형성된 것은 없고, 모두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 대조적이다. 이러한 점은 [머리]와 [두발]과 관련된 우리의 다양한 인식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관용 표현, 축어적 의미, 관용적 의미, 은유, 환유, 용기-내용물

1. 들어가기

본고는 국어의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idiomatic expressions)[1]의 의미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관용 표현의 의미 구조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은 그것의 축어적(逐語的) 의미와 관용적 의미, 그리고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비유적 전이 과정이다. 다음 예를 보자.

(1) 머리를 굴리다.
(a) [머리를 굴리다] — (비유적 전이) → (b) [머리를 써서 생각하다]

(1)에서 (a)는 [머리를 굴리다]의 문자적 의미를 나타낸다. (a)에서 비유적 전이 과정을 거쳐 (b)와 같은 새로운 비유적 의미가 생성된다. 그 후 이러한 의미가 언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광역성과 대중성을 갖추게 됨과 동시에, 표현 그 자체가 고정되어 필수적 결합 관계를 가지게 되어 관용 표현이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a)의 의미를 '축어적 의미'로, (b)의 의미를 '관용적 의미'로 일컫는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국어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를 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는 이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관용 표현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은 대개 관용 표현의 의미 기능[2]을 중심으로 분류·나열한 다음 그

---

1) 관용 표현의 개념 규정은 단순하지 않다. 문금현(1996)에서는 '언어 내적으로는 제3의 의미를 가진 비유적 표현이면서 필수적인 결합 관계를 가진 고정된 표현이고, 언어 외적으로는 광역성과 대중성을 어느 정도 갖춘 것들'을 '협의의 관용 표현'이라 하고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문금현(1996)의 견해를 따른다.

2) '의미 기능'이란 용어는 개념적 의미 외에 화용론적 의미까지를 포괄하는

의미 기능적 특이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정도이다. 외국어와의 대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3]도 양 언어의 관용 표현들을 관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나열한 다음 의미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볍게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본고에서도 관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분류한다. 둘째, 각 관용적 의미의 하위 범주별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축어적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핀다. 그렇게 하여,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에 어떠한 성격의 의미 내용적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셋째,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의 비유적 특징을 기술한다.

관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들을 분류하는 것은 언중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발화의 표면적 의미보다는 화자의 의도적 의미가 핵심적 내용이 되고, 화자의 의도는 관용적 의미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는데, 그렇게 하면,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의 의미 내용적 연관성을 좀 더 분명하게 따져 보는 데 도움이 된다.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에 어떠한 성격의 의미 내용적 연관성이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머리'와 관련된 우리 언중들의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는 일이며,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의 비유적 특징을 기술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비유법적 관점에서 정교화하는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4]에 제시되어 있는 [두부] 관련 관

뜻으로 쓴다.

3) 박갑수(1999), 임팔용(2004) 등이 있다.

4)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국어대사전』 자료를 이용하였다.

용 표현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사전에는 [두부]의 의미로 쓰인 '머리' 항에 총 51개의 관용구와 12개의 속담이 등재되어 있다. 12개의 속담 중 관용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두 개(머리 두를 데를 모른다, 머리가 모시 바구니가 되었다)를 넣어, 총 53개의 관용 표현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관용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각각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계산했는데, 결과적으로 총 60개의 관용 표현을 연구 자료로 삼은 것이 된다. 이 안에는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는 4개의 관용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사전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긴 하지만,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용 표현의 의미 구조를 기술하는 하나의 온당한 모형을 세워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은 모두 [두부]에 해당되는 단어('머리')가 들어 있고), 그것이 그 표현 전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5] 그리고 이들 단어 모두 [머리]의 의미와 [두발]의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인데,[6] 이들과 관련된 관용 표현들의 의미 기능도 크게 이들 두 가지 의미와 관련하여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자의 경우를 '[머리]의 의미'인 경우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두발]의 의미'인 경우라고 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

5) '[두부] 관련'이라고 하면 '대가리' 등 다른 단어들이 들어 있는 경우도 다루어야 하지만, 논의를 하나의 문제로 집중하기 위해 제외한다.

6)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머리'에는 ①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②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③머리털 등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단의를 기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관용 표현들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앞의 세 가지다. 그런데 [두부]의 외형을 보면 ①의 부분과 ③의 부분으로 이뤄져 있고, ②는 ①이 수행하는 기능일 뿐이다. 본고에서 [두부] 관련 관용 표현을 ①과 관련된 경우(제2장. [머리]의 의미인 경우)와 ③과 관련된 경우(제3장. [두발]의 의미인 경우)로 양분하여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 [머리]의 의미인 경우

이 범주에 속하는 관용 표현들은 첫째, [머리]의 소유 주체의 정신이나 외형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들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있고, 둘째, 발생된 어떤 사태의 내용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셋째, 어떤 사태의 발생 그 자체와 관련된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차례대로 고찰한다.

1) 소유 주체 관련 표현

소유 주체 관련 표현이란 어떤 사람의 정신이나 외형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머리]와 관련된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다. 첫째 사람의 정신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와, 둘째, 사람의 외형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 셋째, 사람의 사회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한다.

(1) 정신적 특성

① 심리 상태

여기서는 [머리]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관용적 의미를 형성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경우들을 다룬다.

(2) (a) 머리가 가볍다(상쾌하여 마음이나 기분이 거뜬하다.)
(b) 머리가 무겁다(기분이 좋지 않거나 골이 띵하다.)
(c) 머리가 복잡하다(고민이 많다.)

[머리의 가벼움]은 [상쾌하거나 거뜬한 심리 상태]를, [머리의 무거움]은 [기분이 좋지 않거나 골이 띵한 심리 상태]를, 그리고 [머리의 복잡함]은 [고민이 많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다. 이들 자료의 비유적 전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가) [머리] → [마음/ 기분]
(나) (a) [가볍다] → [상쾌하다/ 거뜬하다]
(b) [무겁다] → [(기분이) 좋지 않다]
(c) [복잡하다] → [고민이 많다]

(가) 부분은 환유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머리'는 '용기(容器)'이고 '마음이나 기분, 고민'은 그 '내용물'이라는 점에서,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이다.

(나) 부분은 은유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무엇이 상승하는 것으로(예: 마음이 들떠다), 기분이 나쁘면 무엇이 가라앉는 것으로(예: 분위기가 가라앉다)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가벼우면 위로 뜨고 무거우면 아래로 가라앉는데, '위쪽'을 긍정적인 것과 아래쪽을 부정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방식(예, 오늘 기분이 저기압이다.)이어서, 일종의 방향적 은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하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은유적 발상이다.[7]

(3) 머리를 식히다.

이 예에서는 [머리를 식힘]의 의미로 [마음을 평온하게 함]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도 용기인 [머리]로 그 내용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우선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를 지적

7) '마음이 가볍다/무겁다/복잡하다' 등과 같은 관용 표현들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도 개재되어 있다. 우리는 흥분하면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예: 화나다/열나다.), 머리의 열을 식히는 것은 흥분이 해소되는 결과의 원인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a) 머리를 짓누르다(정신적으로 강한 자극이 오다.)
(b) 머리에 쥐가 나다(싫고 두려운 상황에서 의욕이나 생각이 없어지다.)
(c) 머리를 썩이다(어떤 일로 몹시 애를 쓰며 생각에 몰두하다.)
(d) 머리를 빠뜨리다(몹시 실망하거나 낙담하다.)

(a)에서처럼 머리에 압박을 가하면 마음에 자극이 생긴다는 것은 언중들이 용기인 '머리'를 짓누르면 내용물인 '정신'에 영향이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원인 행위에 의해 마음에 자극이 가해지거나 생명이 끊어지는 결과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가 작용된 것이기도 하다. (b)는 [머리에 경련이 나다]의 의미로 [의욕이나 생각이 없어지다]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용기인 머리에 경련이 일어나면 작동이 불가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욕이나 생각이 생산되지 않을 것이므로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임을 알 수 있다.

(c)에서는 [머리를 썩임]의 의미로 [몹시 애를 쓰며 생각에 몰두함]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머리를 썩이는 것은 머리를 몹시 힘들게 작동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몹시 애를 쓰며 생각에 몰두한다는 뜻이다. 동일한 상황을 신체적 관점에서 표현하면 머리를 썩이는 것이 되고, 정신적 관점에서 보면 몹시 애를 쓰며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구체성→추상성' 방식의 환유로 볼 수 있다. (d)는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음]의 의미로 [몹시

실망하거나 낙담함]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동일한 상황을 육체적 관점에서 표현한 것과 정신적 관점에서 표현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구체성→추상성' 방식의 환유로 볼 수 있다.

(5) 머리(를) 긁다(수줍거나 무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어색함을 무마시키려고 머리를 긁적이다.)

이 예는 [머리를 긁음]의 의미로 [수줍거나 무안함의 표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의 관용어가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비유적 전이 과정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지는 참 흥미진진한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용기인 머리를 이용하여 그 내용물인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가 작용한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면 '머리를 긁는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어이 없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게 될 때 순간적으로 이마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머리통을 주먹으로 두들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산품(내용: 생각)을 만들어낸 생산기관(용기: 머리)을 책망하는 행위이다. 머리를 긁는 행위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줍거나 무안해 할 만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경우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머리나 이마를 두들기거나 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한 충격이고 긁는 것은 약한 충격인데, 이러한 물리적인 차이가 심리적인 차이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자는 강하게 질책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가볍게 질책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하는 의도도 질책의 강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분명이 인식하게 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게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견주어 보면 가볍게 질책하는 것은 그러한 인식과 반성을 강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내용의 인식과 반성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원만히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머리를 긁는 것은 현재의 사태(수줍거나 무안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신적 사고의 주체라고 생각되는 ‘머리’에 대해 가볍게 질책함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게 하며, 추후에는 좋은 생산품(생각)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을 질책하면서도 달래고 얼러서 인간관계의 파국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나 소 등과 같은 가축을 어를 때 손으로 등을 슬슬 긁어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와 같은 추론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주어진 사태의 발생에 대해 수줍어하거나 무안해 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머리를 긁는 행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농부가 논에 김을 잘 매어 벼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농부의 김매는 일은 논바닥을 손으로 긁어 피(잡초)도 제거하고 흙의 영양분이 뿌리 속으로 잘 흡수되도록 하여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수줍거나 무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어색함을 무마시키려고 머리를 긁적이는 것도 동일한 심리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를 긁어 이물질(비듬)을 제거함으로써 머리가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수줍어하거나 무안해 하고 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비유법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용기(머리)와 그것의 내용물(심리 상태)을 관련짓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머리를 긁음)로 추상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구체성→추상성' 방식의 환유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의 김매기와 머리 긁기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여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은유적 발상도 깔려 있다고 본다.[8)]

② 정신 능력

여기서는 '머리'가 '사람의 정신 능력과 관련된 관용적 의미'를 형성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경우들을 다룬다.

(6) (a) 머리가 (잘) 돌아가다(임기응변으로 생각이 잘 떠오르거나 미치다.)
(b) 머리 회전이 빠르다(생각이나 판단력이 분명하고 똑똑하다.)
(c) 머리가 깨다(뒤떨어진 생각에서 벗어나다.)
(d) 머리 위에[꼭대기에] 앉다[올라앉다](①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꿰뚫다.)

이 관용 표현들은 사람의 정신 능력이 긍정적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 (b)에서 보듯이, [머리의 잘 돌아감/머리 회전이 빠름]은 [머리의 원활한 작동]을 나타내는 것(원인)이며 그 결과

8) '머리를 긁다'와 관련된 본고의 이러한 기술에 대해 세 분의 심사위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필자도 이 부분의 추론에 쉽게 수긍하기 힘든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달리 새로운 대안을 찾기 힘들어 한두 군데 표현만 고치고 나머진 그냥 두었다. 특히 이 예는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가 비유적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추론하기가 매우 어렵다.

[훌륭한 생산(생각의 잘 떠오름/분명하고 똑똑함)이 이뤄짐]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c)에서는 우리가 [깨는 것]은 수면의 세계에서 각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원인적 행위라고 보고, 잠자는 것은 몽매한 세계에 빠져 있음을, 깨어나 있는 것은 새로운 정신적 발전이 이뤄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다(예: 중세의 암흑세계에서 깊은 잠을 자던 사람들이 서서히 깨어나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뒤떨어진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은유적 발상도 보인다. (d)는 [상대방의 머리 위에 앉다]의 의미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꿰뚫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방의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머리를 점령했다는 것이고, 용기인 머리를 점령하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인 생각이나 그것에서 비롯된 행동을 장악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일 뿐만 아니라,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임을 알 수 있다.

(7) (a) 머리(가) 굳다(① 사고방식이나 사상 따위가 완고하다.)
(b) 머리(가) 굳다(② 기억력 따위가 무디다.)
(c) 머리(가) 썩다(사고방식이나 사상 따위가 낡아서 쓰지 못하게 되다.)
(d) 머리가 젖다(어떤 사상이나 인습 따위에 물들다.)
(e) 머리에 녹이[쉬가] 쓸다(<북> 사상이 변질되어 건전하지 못하게 되다.)
(f) 머리에 병이 들다(<북> 낡은 사상이나 생활 방식에 젖어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게 되다.)
(g) 머리가 비다(지각이나 소견이 없다.)

위의 예들은 모두 사람의 정신 능력이 부정적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모두 앞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바탕을 두고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a)-(f)는 모두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로도 볼 수 있다. (g)는 '구체성→추상

성' 방식의 환유라고도 할 수 있다. 전자는 [머리의 굳음/썩음/젖음/녹이 슮/병이 듦] 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결과가 초래된 경우이고, 후자는 [지각이나 소견이 없음]의 구체적 증상이 [머리 속이 비어 있음]이라고 본 경우이다.

정신 능력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예들이 '정신 능력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아래의 관용 표현은 '정신 능력의 운용'을 나타내고 있다. 정신 능력을 운용하여 무엇을 궁리하거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냄을 표현하고 있다.

(8) (a) 머리(를) 굴리다(머리를 써서 생각하다.)
(b) 머리(를) 쓰다(어떤 일에 대하여 이모저모 깊게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찾아내다.)
(c) 머리를 쥐어짜다(몹시 애를 써서 궁리하다.)

우리의 생각은 머리 속에서 이뤄진다. 그런 까닭으로 '생각'은 생산품이요, '머리'는 생산 기관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큰데, (8)의 자료는 그러한 인식의 결과이다. 따라서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생산 기관을 작동하게 하거나(머리를 굴리다/쓰다) 압박을 가하다(머리를 쥐어짜다)]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축어적 의미로써 [좋은 생산품(생각/아이디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와 같은 추상적인 관용적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고 보는 점이나, 또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에 의해 어떤 생산품이나 내용물이 만들어지거나 추출되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 점에서, '구체성→추상성' 또는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라고도 볼 수 있다. '머리를 쥐어짜다'에서는, 빨래를 쥐어짜면 물이 나오듯이, 머리를 쥐어짜면 생각이 물처럼 나온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을 액체로 개념화하여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유적 방식에 해당된다.

③ 태도

여기서는 [머리]가 사람의 생활 태도적 특성을 표현하는 관용적 의미를 형성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경우들을 다룬다.

(9) (a) 머리(를) 싸고(있는 힘과 마음을 다하여.)
(b) 머리(를) 싸매다(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다.)
(10) 머리 위에[꼭대기에] 앉다[올라앉다](②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다.)

(9)에서는 [머리를 싸(매)다]의 축어적 의미가 [힘과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다]의 관용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머리를 싸(매)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머리를 잘 보호하여 원만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우리는 주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거나 동여매는 것을 종종 본다. 여기서의 '머리'는 '정신 자세'이고, '싸거나 매는' 행위는 '원심 지향적이고 이완된 정신 자세'를 '구심 지향적이고 긴장된 정신 자세'로 바꾸는 것이다. 물건들을 모아서 싸거나 매면 그것들은 강하게 밀착되면서 하나의 동질적인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정신적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힘과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들 관용 표현들은 모두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바탕을 둔 것임과 동시에, '구체성→추상성' 방식의 환유적 특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무엇을 싸거나 매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유적 특징도 보인다. (10)은 상대방의 머리 위에 앉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동시에 잘난 체하는 태도라는 뜻이다. 이 예도 마찬가지로 '구체성→추상성' 방식의 환유가 작용하여 이뤄진 것이다.

(2) 외형적 특성

(11) (a)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또는 나이가 어리다.)
(b) 머리(가) 크다(성인이 되다.)
(c) 머리(가) 굵다(=머리(가) 크다.)
(d) 머리에 털 나고(태어나서)

(a)는 [태어날 때 머리에 묻었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축어적 의미로부터 [태어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와 같은 관용적 의미로 전이된 것이다. 시작 단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로 '시간의 일천함'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체성→추상성' 방식의 환유가 작용된 것이다. (b, c)는 아이의 머리보다는 어른의 머리가 더 클 것이므로, [머리가 크다]는 구체적 의미로부터 [성인이 되었다]는 추상적 의미가 파생된 것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의 환유라고 볼 수 있다. (d)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3) 사회적 특성

① 태도

(12) (a) 머리가 수그러지다(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다.)
(b) 머리(를) 숙이다(②마음 속으로 탄복하여 수긍하거나 경의를 표하다.)
(13) (a) 머리(를) 굽히다(굴복하거나 저자세를 보이다.[9])
(b) 머리(를) 숙이다(①굴복하거나 저자세를 보이다.)

9) '머리(를) 숙이다' ①의 의미와 유사함.

위 예는 공통적으로 ‘상대방을 높이거나 자신을 낮추는 공손한 태도’를 ‘자신의 머리를 숙이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나 모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는 점에서 동일한 생각이다. ‘자신의 머리를 숙임’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축시킴’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유적 특징이 보인다. 또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머리를 숙여서 하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낮춘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구체성→추상성’ 방식의 환유도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자료도 모두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② 활동

(14) (a) 머리(를) 내밀다(어떤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다.)
(b) 머리(를) 맞대다(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
(c) 머리(를) 모으다(①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서로 바투 모이다.)
(d) 머리(를) 모으다(②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다.)

위 관용 표현들은 모두 부분인 ‘머리’로 전체인 ‘사람’을 나타내고 있거나(부분→전체’ 방식), (d)의 해석에서처럼 ‘용기(머리)’로 ‘내용물(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환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사람들이 ‘머리’를 지적인 활동의 중심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태 내용 관련 표현

(15) 머리 꼬리 없이(<북> 까닭 모를 말이나 앞뒤의 연관 관계가 없는 말을 불쑥 꺼내어 갑작스럽거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직립해 있을 경우 사람의 신체 부위 중 머리가 제일 위에 있게 되어, 머리는 [선두/최초/시작]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앞의 자료가 그 예인데, 일의 시작이나 선두 진행을 [머리]로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은유적 특징을 보인다.

3) 사태 발생 관련 표현

① 노출과 전환 및 은폐

내용물에 해당되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의 용기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환유의 전형적인 쓰임의 하나인데, 다음의 자료를 보면 그러한 쓰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16) (a) 머리(를) 들다(눌려 있거나 숨겨 온 생각·세력 따위가 겉으로 나타나다.)
(b) 머리를 쳐들다(눌려 있거나 숨겨 온 생각·세력 따위가 겉으로 나타나다.)
(c) 머리에 맴돌다(분명하지 않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다)

(a, b)는 [머리(를) (쳐)들다]의 의미가 [……생각·세력 따위가 겉으로 나타나다]의 의미로 전이되어 쓰인다는 것인데, 그 비유적 전이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동일한 표현이 [……생각이 겉으로 나타나다]의 의미를 형성하

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세력이 겉으로 나타나다]의 의미로까지 확장하게 되는 과정이다.

제1단계: '머리(를) (쳐)들다' → [……생각이 겉으로 나타나다]
제2단계: [……생각이 겉으로 나타나다] → [……세력이 겉으로 나타나다]

먼저 1단계를 보면, '[머리] → [생각]'의 과정은 '용기→내용물' 형식의 환유이고, '[(쳐)들다] → [나타나다]'의 과정은 '원인→결과' 형식의 환유이다. 무엇을 (쳐)들게 되면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나게 된다. 2단계의 의미 확장은 [생각]의 의미에서 [세력]의 의미로 전이가 일어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 생각이 모이면 큰 세력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부분→전체' 형식의 환유로 볼 수 있다.

(c)는 머리속에서 분명하지 않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생각이) 계속 떠오르다]의 의미를 [(생각이) 맴돈다]의 의미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유에 해당된다고 본다.

(17) 머리를 돌려 세우다(<북> 이미 가졌던 생각을 되돌리다.)

(17)의 예에서는 '머리를 돌려 세우다'와 같은 형식의 표현이 [생각을 변경하다]와 같은 내용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우선 '머리'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앞의 경우와 같다. '돌려 세우다'가 [변경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은 [(머리를)돌려세우다] → [(생각을)되돌리다]의 과정과, [(생각을)되돌리다] → [(생각을)변경하다]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단계는 [(머리를)돌려세우다]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로 [(생각을)되돌리다]와 같은 추상적인 행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체성→추상성' 형식의

환유가 작용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되돌리다]의 개념으로 [(생각을)변경하다]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은유가 작용된 것이다.

(18) 머리(를) 흔들다(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진저리를 치다.[10])

(18)에서 보듯이, [머리(를) 흔들다]의 의미가 [① 거부 의사 표현, ② 싫증남의 표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런 식의 쓰임은 인류 보편적인 표현 방식이라 생각되는데, 그 비유적 전이 과정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거부 의사 표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머리를 좌우로 흔듦으로써 상대방의 제안이나 생각 등이 자신의 머리 속으로 입력되는 것을 차단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제안이나 생각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머리를 좌우로 흔듦] → [외부 정보의 입력 차단]의 과정과, [외부 정보의 입력 차단] → [거부 의사의 표현]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단계 모두 '원인→결과'의 환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첫 단계는 흔드는 것이 원인이 되어 정보 입력이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제안이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원인 행위로 그것의 수용을 거부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싫증남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은 머리를 좌우로 흔듦으로써 머리의 사고작용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속에 들어 있는 특

10) '진저리'의 의미: ① 차가운 것이 몸에 닿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에, 또는 오줌을 눈 뒤에 으스스 떠는 몸짓. ② 몹시 싫증이 나거나 귀찮아 떨쳐지는 몸짓.

정의 생각이나 느낌을 뒤섞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내용 자체를 없애고 싶어하는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마찬가지로 '원인→결과'의 환유이다.

② 입력

(19) (a) 머리에 그려 넣다(=머리에 새겨 넣다.)
(b) 머리에 새겨 넣다(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단단히 기억해 두다.)

이 자료들은 [머리에 그려 넣거나 새겨 넣다]의 의미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히 기억하다]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것은 무엇을 그리거나 새겨 놓음으로써(원인) 지워지지 않고 오래 보존된다고(결과) 보는 인식에 비롯된 것으로서, '원인→결과'의 환유에 해당된다. 이들 자료는 모두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3. [두발]의 의미인 경우

본고의 관용 표현들 속에 들어 있는 '머리'의 의미는 [머리]의 의미로 쓰인 경우와 [두발]의 의미로 쓰인 경우로 나뉜다. 지금까지 다룬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지금부터 다루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① 정신적 특성

(20) (a) 머리가 빠지다(일이 복잡하거나 어려워 신경이 쓰이다.)
(b) 머리가 세다(복잡하거나 안타까운 일에 너무 골몰하거나 걱정할 때 이르는 말.)

앞의 자료에서는 [머리카락이 빠지다/세다]의 의미로 [신경이 쓰이거나 걱정하다]와 같은 의미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일에 신경이 쓰이거나 걱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센다고 보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내용이 환유로 표현될 때는 '원인'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지향이 거꾸로 되어 '결과→원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② 외형적 특성

(21) 머리(를) 얹다(① 여자의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땋아 엇바꾸어 양쪽 귀 뒤로 돌려서 이마 위쪽에 한데 틀어 얹다.)

이 예는 여성들의 특정한 두발 치장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얹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의 동작으로 이뤄지는데, 크게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자의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땋아 엇바꾸어 양쪽 귀 뒤로 돌려서 이마 위쪽에 한데 틀어 얹다]와 같은 관용적 의미는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모두 표현하고 있지만, 축어적 의미 [머리를 얹다]는 결과적 모습만 표현하고 있다. 관용적 의미 부분은 '머리를 얹는' 행위의 과정과 결과 전부를 담고 있는데 비해, 축어적 의미는 그것의 일부만 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전체' 방식의 환유가 작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2) (a) 머리에 서리가 앉다(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세다. 또는 늙다.)

(b) 머리가 모시 바구니가 되었다(머리털이 하얗게 세어 늙었다)

이 자료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었음]을 [머리에 서리가 앉다/ 머리가 모시 바구니가 되었다]와 같은 의미로 나타내고 있다.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까닭으로 머리가 희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니, '결과→원인' 방식의 환유임을 알 수 있다.

③ 사회적 특성

(23) (a) 머리(를) 깎다(① 중이 되다.)
(b) 머리(를) 얹다(② 어린 기생이 정식으로 기생이 되어 머리를 쪽 찌다.)[11]
(c) 머리(를) 얹다(③ 여자가 시집을 가다.)
(d) 머리(를) 얹히다(① 어린 기생과 관계를 맺어 그 머리를 얹어 주다.)
(e) 머리(를) 얹히다(② 처녀를 시집보내다.)
(f) 머리(를) 올리다(= 머리(를) 얹다. ①)
(g) 머리(를) 올리다(= 머리(를) 얹다. ②)
(h) 머리(를) 올리다(= 머리(를) 얹다. ③)
(i) 머리(를) 풀다(상을 당하여 틀었던 머리를 풀다.)
(j) 머리(를) 깎다(② 교도소에 복역하다.)
(k) 머리(를) 깎이다(남에게 강제로 어떤 일을 당하다.)

이 자료들은 모두 [두발에 변형을 가함]의 의미로 [사회적 신분의 변동]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예이다. 중이 되거나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면 머리를 깎는 의식을 치르고, 또 여자가 시집을 가거나 기생이 되면 머리를 얹는 의식을 치르는 일종의 통과의

11) [여자의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땋아 엇바꾸어 양쪽 귀 뒤로 돌려서 이마 위쪽에 한데 틀어 얹다.]의 뜻이 중심 의미임.

례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의 통과의례로 의식화하는 데 [두발]의 의미로서의 '머리'가 이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두발'을 우리의 신분적 정체성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표현은 모두 '결과→원인' 방식의 환유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머리를 깎는 것은 중이 되거나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기는 일들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신분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머리를 깎게 된 것이지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온 것이 아님은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축어적 의미가 가리키는 상황은 모두 관용적 의미가 가리키는 상황이 도래하면 실현되는 구체적인 증상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 가서 복역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머리를 깎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구체성→추상성' 방식의 환유로도 볼 수도 있다.

4. 마무리

본고는 국어의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의 의미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관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다음,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에 어떠한 성격의 의미 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며,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의 비유적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국어의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은 그 핵심어 역할을 하는 '머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머리]의 의미인 경우와 [두발]의 의미인 경우 등 2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

로 삼은 총 60개의 관용 표현 중 46개가 전자에 해당되고 14개가 후자에 해당되어, [머리]와 관련된 경우가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머리]와 [두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한 부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전자는 우리 인간의 생명 그 자체이지만 후자는 전자를 보호하거나 장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언어 세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전자와 관련된 관용 표현이 월등히 많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관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것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분류하여 세밀하게 하위 유형화하였다. [머리]의 의미인 경우는 소유 주체와 관련된 경우와 사태 내용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사태 발생과 관련된 경우 등의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각 하위 유형을 다시 또 하위 유형화하고, 더 나아가 세부적인 의미 기능을 설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어의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이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고, 축어적 의미와의 의미 내용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머리]의 의미인 경우→소유 주체와 관련된 경우→정신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세밀하게 범주화함으로써, 어떠한 내용의 축어적 의미가 어떠한 내용의 관용적 의미와 연계되는지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어의 두부 관련 관용 표현들은 대부분 환유의 방식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머리]의 의미인 경우'와 '[두발]의 의미인 경우'가 조금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바탕을 두고, '구체성→추상성' 또는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에 의해 형성된 것은 없고, 모두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 대조적이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이 '용기→내용물' 방식의

환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용기로서의 [머리]를 이용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생각이나 마음 등과 같은 내용물을 표현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용기로서의 머리 그 자체보다는 그 내용물을 주된 관심사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원인→결과' 방식의 환유에 의해 형성된 것이 전부라는 것은 우리가 [두발]을 [머리]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용에 의해 변화되어 나타나는 수동적 실체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두발]은 용기가 아니어서 무엇을 담을 수도 없고 사고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부적 원인에 의해 변화되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은유의 방식은 '[머리]의 의미인 경우'에 조금 보이지만, 모두 환유의 방식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09.
김귀룡 외, 『언어와 사유 II: 언어의 상부구조에 관란 연구』, 도서출판 동과서, 2007.
김태헌, 「은유의 신체적 경험과 문화와의 관련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박갑수, 「'손' 관계 관용구의 발상과 표현 - 한·영·일어의 비교 -」, 『이중언어학』16, 이중언어학회, 1999.
박종갑,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 수정증보판, 도서출판 박이정, 2006.
범금희, 「한국어 연결어미류의 실현 양상에 대한 텍스트 분석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유 진,「한국어와 중국어의 '구부' 및 '두부' 관련 관용 표현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종열,『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2003.
임지룡,『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임팔용,『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연구』, 제이앤씨, 2004.
정원용,『은유와 환유』, 신지서원, 1996.
정인숙,「비유법을 통한 국어 신어의 의미 확장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A Study on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The Head]

Park, Jong-Gap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analyse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The Head]. First, these expressions are classified centering around meaning, and then the article examined what kind of 'meaning contents' literal meaning and idiomatic meaning have and what figurative characteristics are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meaning of 'head' of the core word in them, the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The Head]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head' and 'hair'. Among 60 idiomatic expressions, 46 is the former and 16 is the latter. The expressions related to 'head' is much more, and this reflects the recognition that 'head' is more important than 'hair'.

The method for classifying the idiomatic meaning which centers in the article is to sub-classify them hierarchically in a systematic and in a more detailed manner. By conducting this method, the article could be a great help us know what meaning is the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The Head] used as, and help us grasp their relatedness in 'meaning contents' with the literal meaning.

The article shows that the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The Head] are formed by the method of metonymy.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in the cases between the meaning of 'head' and 'hair'. The former is mostly based on the metonymy of 'container->content' and the latter is based on the metonymy of 'cause->result', not on the metonymic mechanism of the former. The factors revealed in the article shows the diversity of our recognition on the expressions related to 'head' and 'hair'.

Key words : Idiomatic Expressions, Literal Meaning, Idiomatic Meaning, Metonymy, Metaphor, Container-Content

박종갑
소속: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016-9812-9536
전자우편: ckpak@yn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